

## 과학자의 IQ는 역시 높다

지난 6월 미국의 대화형 IQ 테스트 프로그램인 '테스트 더 네이션'에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우수한 지능을 과시했다. 언어, 논리, 수학기량 및 시각인식을 망라한 60개 질문에서 과학자 집단은 평균 IQ 125를 획득하여 여러 집단 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조교수이며 망막정보처리 전문가인 데이비드 머와인은 138점을 얻어 최고점을 기록했다. 폭스 TV 방송망을 통해 방영된 이 쇼에는 50만 명의 시청자들이 참여했다.



영국 최연소 공학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출된 폴 웨스트버리

미 당국은 이 두 사람의 선출은 영국 공학계의 새로운 활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50명의 신임 회원 중에서 여성은 단 2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을 합쳐 20명의 여성회원은 1천236명의 아카데미 회원의 1.6%에 지나지 않아 여성에게는 엔지니어 직업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당국은 말하고 있다.

## '조건 없는 연구비 30만 달러'

노벨상 수상자이며 대기화학연구자인 셔우드 룰랜드는 젊은 동료 과학자 한 사람을 불러 "기상변화에 관한 빙하기기록연구를 계속하는데 30만 달러의 연구비를 줄 터이니 받아 줄 것인가?"고 물었다. 젊은 과학자가 이 연구비를 받은 것은 물론이다. 이 연구비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억만장자 개리 캠머가 내놓은 것이다. 캠머는 캘리포니아 대학(어바인)의 룰랜드와 뉴욕 주 라몬-도허티 지구관측소의 지구화학 해양학 전문가 월레스 브뢰커를 선정하여 이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자에게 6백90만 달러의 자금을 나눠 주게 했다. 지금까지 연구비를 받은 사람은 21명이었다. 연구비

를 받은 사람들은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 그 존재를 찾게 되어 반갑다"고 말했다.

## 실험보다 잡무에 바빠

대부분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미국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HHMI)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3백29명의 조사대상자 중 55%가 실험실에서 보낸 일이 전혀 없고 연구실에서 주 20시간 이상을 보내는 연구자의 수도 8%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연구원들과의 대화와 이들의 연구결과를 훑어보는데 보내고 있다. 그밖에 연구비신청, 교육·논문작성, 논문심사 그리고 회의참석 등을 포함한 잡다한 일로 보내고 있다. 저명한 과학자들이 실험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데서 오는 가장 큰 손실은 경험이 많지 않은 연구원들로서는 실험중에 발견하기 어려운 뜻밖의 결과가 나와도 그 중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놓쳐 버린다는 점이라고 휴스턴 소재 베일리 의대에서 일하고 있는 HHMI 연구원 신경생물학자 존 마운셀은 주장하고 있다.

## 여성과학자 바다표범에 희생

남극반도에 있는 영국 남극연구소의 여성 해양생물학자 커스티 브라운은 지난 7월 말 남극연안에서 빙산이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던 중 바다표범의 공격을 받고 바닷속으로 끌려가 사망했다. 올해 29세의 브라운은 지난 여름 남극연구에 참가하기 전에는 그린란드와 호주에서 잠수부와 현장과학자로 일해왔다.

## 일본 리켄소장에 노벨 수상자

노벨 수상자 노요리 료지(64)가 86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의 이화학연구소(理化學研究所: 약칭은 '리켄') 신임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노요리 소장은 2천300명의 리켄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이 연구소를 '우수연구소'로 만들었으나 리켄과 같은 연구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런 지원에는 보다 많은 대중의 이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2001년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노요리는 오는 10월 나고야 대학에서 은퇴한 뒤 리켄 소장에 취임한다. ◎

글\_현원복 과학저널리스트 hyunwb@kornet.net